

부동산부를 신설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경종(警鐘). 위기에 닥쳐 울리는 종소리다. 2011년, 월가의 탐욕과 부패에 대해 ‘99%’ 미국시민들의 분노가 터졌다. 반 월가시위라는 경종이 울렸다.“미국의 최고부자 1%가 미국전체 부(富)의 50%이상을 장악했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 99%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방값걱정, 끼니걱정을 하지 않게 해 달라.”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덕분에 여전히 막대한 특혜를 누렸다. 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한해 급여로 일반 월급쟁이의 수백년치 연봉을 챙기고 있다. 반면에 주택담보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을 못해 거리로 나왔었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에서 자본주의의 규탄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다. 미국의 부실 금융대기업이나 부실 제조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거액의 공적자금 수혈을 받고 연명했기 때문이다. 1%가 먼저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시위는 큰 의의를 남겼다.

원래 서양종은 내타식(內打式)이고 동양종은 외타식(外打式)이다. 서양종은 종신의 내부에 추를 배단 후 종 전체를 움직여 소리를 내게 한다. 노틀담 사원의 큰 종이나 대제사장의 예복에 부착되었던 금방울이 내타식이다.

동양종은 종신 외부에 당목(撞木)을 쳐서 소리를 낸다. 보신각종이나 에밀레종이 그렇다. 당목은 종을 치는 나무 기둥이다.

서양종과 동양종은 동·서양의 시스템 차이를 상징한다. 한 때 발전을 구가 하던 미국식 경영은 내부 견제시스템 중심이다. 이에 반해 밖에서 질타와 협박을 해야만 조금 움직이는 시늉을 하는 한국식 경영이 대조적이다. 그런데 반 월가시위는 내타식이 아니다. 탐욕과 부패로 내부가 썩어서 작동 못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밖에서 시위대가 등장했다. 시위대가 바로 당목인 것이다. 서양에서 외타식의 등장은

천지개벽을 의미한다.

서양의 대표적인 외타식 사회개혁은 프랑스 혁명이다. 18세기 말 루이 16세의 '1%' 기득권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게다가 교활하고 부패했다. 이에 배고픈 시민들이 일어났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물질 모르는 망언을 했다.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한국에도 그런 망언이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라고 망령을 부렸다. 결국 4·19 민주혁명이 터졌다. 한국인들은 부마항쟁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6·10 항쟁으로 직선제 대통령제를 획득했다.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시대를 만들어 낸 당목이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1일 (금)	8월 14일 (월)	8월 16일 (수)	8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317.30	1321.10	1331.30	1338.30
일	본	엔	(JPY)	909.77	911.70	914.26	914.80
영	국	파	운 드	(GBP)	1669.22	1676.48	1690.75
캐	나	다	달 러	(CAD)	979.66	982.92	986.51
홍	콩	달	러	(HKD)	168.46	168.98	170.16
중	국	원	(CNH)	182.32	182.59	183.28	182.83
유	로	화	(EUR)	1446.72	1445.68	1451.52	1455.87
호	주	달	러	(AUD)	858.29	858.32	859.42
싱	가	폴	달 러	(SGD)	976.25	976.42	980.0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12	288.01	287.18